

## 사노피, 만성질환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하는 ‘사이다’ 캠페인 전개

- \* 세상아이, 우양재단과 협업해 만성질환 어르신 140 명에게 개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식재료 4 개월분 제공
- \* 비대면 혹은 소규모 교육으로 조리법 안내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소개도 진행

2021 년 11 월 4 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사단법인 세상아이(대표 김문정),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이사장 최종문)과 함께 만성질환을 가진 홀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재료를 전달하는 ‘사이다(사노피와 이어가는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캠페인을 지난 7 월부터 오는 12 월까지 진행한다고 4 일 밝혔다.

사이다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노피가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 조절이 필요하지만 생활고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홀몸 어르신 140 명을 대상으로 한다.

사노피와 세상아이, 우양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재료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4 개월 간 제공한다. 1 회당 제공되는 식재료는 평균적으로 10~14 일 정도 섭취가 가능한 분량으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연어, 달걀을 포함해 제철 과일과 채소, 견과류, 현미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혹은 소규모 교육도 실시된다. 해당 교육에는 각 식재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노피 배경은 대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통한 식이 조절이 중요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간편식 레토르트나 인스턴트 식재료를 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이 만성질환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노피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제를 공급함과 동시에 환자들을 케어하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동반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는 만성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책임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은평구청,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돕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당당케어’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웹드라마 제작을 통한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달콤한 인생’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챌린지 100’도 진행한 바 있다.

###

[사진과 캡션]

사진	캡션
	<p>‘사이다’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식재료를 제공하는 모습</p>
	<p>제공된 식재료와 교육을 통해 소개된 조리법으로 완성된 한 끼 식사 모습</p>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http://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